

中·高等學生의 담배의 이미지에 관한 調査研究

金明* · 高昇德* · 朴姝美* · 金善姬* · 高善惠**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교육과 · **이화여자대학교 체육학과)

目 次

- | | |
|----------|----------------|
| I. 緒論 | III. 研究結果 및 考察 |
| II. 研究方法 | IV. 要約 및 結論 |

I. 緒論

담배가 人間社會에 普及되기 始作한 이래 人類文化에
끼친 影響은 크다. 아메리카 新大陸에서 유럽으로 傳播
되어진 담배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光海君 10년인
1618년으로 알려져 있으며¹⁾, 이후 1940년대에 들어와서
吸煙行爲와 nicotine의 藥理作用과의 關係를 時事하는
實驗的 證據²⁾를 얻게 되기까지 담배는 그 有毒性에도
불구하고 嗜好物로써 愛用되어 왔다. 그러나 이처럼 大衆의 嗜好品으로 脚光받아오던 담배의 有害性을 확증한
많은 研究와 公衆媒體를 통한 教育 및 現代人の 健康에
대한 期待水準의 貢獻 등에 起因하여 全世界的으로 吸
煙率은 減少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습관적인 吸煙
人口는 成人人口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美
國의 경우에는 吸煙率이 男女 공히 모든 연령에서 현
저하게 減少하고 있으며, 특히 青少年의 경우 오랜기간에
걸쳐 감소해 왔다. 日本에서는 全體의 減少현상을 보
이나 20~29세 사이에 있는 젊은 女性層에서는 增加하고
있고 青少年層에서는 減少하기 시작했다고 한다³⁾.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40대 이상의 男性層에서는 禁煙率이 높아지고 있고, 20~30대 男性의
경우는 吸煙率이 정지되거나 점차 減少하는 양상을 보
이지만 같은 연령의 女性層에서는 吸煙率이 增加하고
있으며, 青少年層의 경우에는 吸煙연령이 점차 낮아지

면서 吸煙率이 增加하고 있는 실정이다³⁾.

靑少年의 吸煙이 問題가 되는 것은 담배의 特性 가운데
人間을 흥분시키고 대담성 및 경박성을 가지게 함으로써
왕성한 身體發育과 건전한 精神을 고취시킬 成長期에
놓여 있는 靑少年에게 장애요인으로 作用함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成人보다 問題의 심각성이 크다고 하겠다¹⁾.
특히 니코틴은 해로인이나 코카인과 같은 中毒性 약물과
흡사한 中毒性을 지니고 있으므로 靑少年期에 吸煙에
노출될 경우 惡影響은 매우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³⁾.
이렇듯 靑少年의 吸煙問題에 대한 심각성에 초점을 맞춘
많은 研究가 靑少年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러한 研究들은 吸煙實態와 形태 분석에 그쳐 있으며
根本적인 靑少年의 吸煙에 대한 認識에서의 접근은 미
흡한 것으로 思料된다. 그러므로 健康教育의 일환으로써
吸煙防止教育은 단순한 知識의 주입보다는 行動에 가장
큰 影響을 주는 態度와 認識의 次元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¹³⁾ 생각되므로 本 研究에서는 態度와 認識의
言語的 形象인 이미지의 分析을 통하여 보다 根本의이고
심층적인 吸煙防止教育을 행하는 健康教育의 方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研究方法

가. 調査對象 및 方法

1. 調査對象

본 調査는 서울市內 中·高等學校 中 각 1個校 총 4個校를 任意抽出로 選定하여 各學校 2學年 學生들을 對象으로 하였다. 調査對象者の 性別 分布는 表1과 같다.

2. 調査方法

中·高等學生의 吸煙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 8절지 시험지를 배부하여 自由記述하도록 하였다. 内容

表 1. 調査對象者の 性別 校段階別 分布

(단위: 명)

	中	高	計
男	216	219	435
女	223	194	417
計	439	413	852

表 2. 連想된 言語의 分類

身體的 項目	情緒的 項目	倫理的 項目	其 他
1. 신체에 나쁘다	1. 연기가 기분 나쁘다	1. 전차나 버스안에서 피우면 안된다	1. 살이 빠진다
2. 주위사람의 건강에 해를 준다	2. 인상이 나쁘다	2. 남에게 피해를 준다(꽁초, 재)	2. 종교
3. 미성년자가 피우는 담배는 해가 크다	3. 냄새가 난다	3. 주변사람이 지도해야 한다	3. 경제
4. 부모의 건강을 해친다	4. 더럽다	4. 여성의 흡연은 안된다	4. 화재, 산불
5. 폐 암	5. 불유쾌하다	5. 20세이상이라도 피우면 안된다	
6. 암, 발암	6. 담배가 싫다	6. 비행, 미성년은 피우면 안된다	
7. 단 명	7. 기분전환이 된다	7. 어린아이앞에서 피우면 안좋다	
8. 폐에 나쁘다	8. 침착, 안정이 된다	8. 학생앞에서 선생님의 흡연은 안된다	
9. 위에 나쁘다	9. 멋있다	9. 때와 장소를 가려 남한테 피해만 주지 주지 않으면 좋다	
10. 임신에 나쁘다	10. 입이 심심해서 핀다	10. 미성년이라도 좋다	
11. 심장에 나쁘다	11. 호기심이 있다	11. 자유이다	
12. 혈액순환에 나쁘다	12. 맛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12. 남성의 흡연은 괜찮다	
13. 기침, 천식	13. 어른 흥내를 내려고 핀다	13. 나는 왜 피는지, 발매금지를 해야 해야 한다	
14. 눈물, 눈이 아프다			
15. 일산화탄소가 나쁘다			
16. 두통이 생긴다			
17. 연기가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답답하다			
18. 니코틴이나 타르는 나쁘다			
19. 공 해			

으로는 「담배에 대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느낌을 써 주십시오」라는 項目과一般的的特性의 背景要因으로 1) 校段階 2) 性 3) 宗教 4) 兩親의 吸煙有無 5) 친구의 吸煙有無 6) 本人의 吸煙有無 7) 장차 吸煙에 대한 意志 등을 調査하였다. 設問紙 배부와 回收方法으로는 1989年 3月에 Pilot-test를 실시한 후 수정·보완하여 使用하였다. 設問紙는 총 1200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856부(71%)가 回收되었다. 本 設問紙의 배부 및 回收에 逍遙된期間은 1989年 4月 15일부터 5月 15일까지 였다.

나. 分析方法

담배의 이미지에 대해 連想된 단어의 分類로는 自由記述된 문장에서 表現(關連言語·短文)을 추려서 1 身體的的 項目 ② 情緒的的 項目 ③ 倫理的的 項目 ④ 其他의 4項目으로 分類하였다. 分類된 項目은 校段階別, 性別,

宗教別, 兩親 친구와 本人의 吸煙有無로 백분율을 이용하여 비교·검토하였다.

III. 研究結果 및 考察

가. 連想語 項目別 分布

抽出된 連想語는 表2와 같이 身體的 項目19개, 情緒的 項目13개, 倫理的 項目13개, 其他 4개로 총 49개 항목으로 分類되었다. 吸煙에 대한 이미지는 男女 中學生 모두 身體的 項目(50.04%, 45.31%) 倫理的 項目(26.14%, 28.99%) 情緒的 項目(16.63%, 29.27%) 順으로 나타났고, 高等學校 男學生에서는 倫理的 項目(41.35%) 情緒的 項目(29.27%), 身體的 項目(27.73%) 高等學校 女學生에서는 倫理的 項目(35.87%) 身體的 項目(34.25%) 情緒的 項目(27.17%) 順으로 나타났다. 男女 中學生에서 身體的 項目 이미지가 높은 것은 初期 青少年期에서 後期 青少年期로 옮아가면서 青少年期의 特定인 自의식의 확립 및 주체성의 추구로써 나타나는 그들의 行動이 다른 사람들이나 自身에게 어떻게 비추어지고 또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지에 대해 항상 관심을 두게 될 뿐만 아니라 感情의 격동에 따른 影響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1. 身體的 項目別 分類

身體的 項目에 連想된 言語를 分류해 보면 첫째, 一般的으로 나쁘다라고 記述한 項目으로는 “身體에 나쁘다” “害가 있다” “周囲 사람의 健康에 害를 준다” “未成年者가 피우는 담배는 害가 크다” “父母의 健康을

해친다”로 보았으며 이는 65.3%를 차지했다. 둘째, 담배가 健康에 치명적으로 작용하여 “폐암 및 발암, 암을 유발한다”고 記述한 項目은 2.60%였으며 셋째, 담배가 人間의 生命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여 “短命”이라고 記述한 項目은 6.82% 넷째, 구체적으로 身體의 일부분을 지적하여 記述한 項目은 “肺에 나쁘다” “妊娠에 나쁘다” “기침·천식” “심장에 나쁘다” “혈액순환에 나쁘다” “胃에 나쁘다” “눈물·눈이 아프다” “頭痛이 생긴다”로 11.47%로 나타났으며 其他 그밖의 項目으로는 “公害·일산화탄소가 나쁘다” 등이 13.81%였다.

이는 吸煙者가 非吸煙者보다 위궤양이 2倍 정도 많이 나타나고 胃癌은 40% 이상 더 많이 유발되며¹²⁾ 妊娠에 있어 조기 파막의 頻度는 妊娠 34주 미만의 吸煙 產母에게서 非吸煙 產母에 비해 3倍가 높고¹³⁾ 吸煙함으로써 가래가 많이 생기고 만성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이 잘 생기며 吸煙者와 非吸煙者的 사망률에 있어서는 吸煙者가 非吸煙者에 비해 평균 5~8년이나 生命이 단축된다는 研究結果⁴⁾에 비추어 볼 때 本 調查에서 구체적으로 健康에 해롭다고 連想語를 쓴 경우 34.7%이고 막연히 健康에 해롭다고 連想語를 쓴 경우는 65.3%인 것을 볼 때 吸煙과 健康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본격적 禁煙教育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2. 情緒的 項目別 分類

담배의 이미지에 대한 情緒的 項目을 담배에 대해 否定의으로 생각하는 項目과 肯定의으로 담배가 좋다고 認識하는 項目으로 分類하였을 때 否定의 項目으로는 “연기가 기운나쁘다” “인상이 나쁘다” “냄새가 난다”

表3. 連想語의 項目別 分布

項 目	男				女			
	中		高		中		高	
	응답된 항목수	%						
身體的 項目	647	50.04	234	27.73	372	45.31	595	34.25
情緒的 項目	215	16.63	247	29.27	192	23.39	472	27.17
倫理的 項目	338	26.14	349	41.35	238	28.99	623	35.87
其 他	93	7.19	14	1.66	19	2.31	47	2.71
計	1293	100.00	844	100.00	821	100.00	1737	100.00

“더럽다” “不偷決하다” “담배가 싫다”로 男子에게서 45.51%, 女子인 경우 51.87%로 나타났다. 반면, 肯定의項目으로는 “氣分轉換이 된다” “침착해 진다” “안정이 된다” “멋지다” “입이 심심해서 편다” “好奇心이 있다” “맛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어른 흥내를 내려고 편다” 등으로 男子인 경우 54.49%, 女子인 경우 48.13%로 나타났다. 이는 가치관 형성이 아직 미흡한 단계에 있는青少年인 경우 모방심, 유혹, 好奇心 등으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한道具로써 담배를 使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精神的 갈등을 발산시키는 역할로 담배를 선호한다는 보고¹¹⁾와 관련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本調査에서肯定의으로 담배를 認識하는 順位가 높은 것으로 보아 이러한 思考가 吸煙人口를 增加시키고 吸煙을 부추기는 結果라고 料된다.

3. 倫理的項目別 分類

담배의 이미지에 대한 倫理的項目을 첫째, 公衆道德을 지키는項目으로 묶어 보면 “전차나 버스안에서 피우면 안된다” “남에게 피해를 준다”(꽁초, 재) “주변사람이指導해야 한다” “때와 場所를 가려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좋다”로써 32.43%였으며 둘째, 吸煙禁止項目으로는 “女性의 吸煙은 안된다” “20세 이상이라도 피우면 안된다” “非行·未成年은 피우면 안된다” “어린이앞에서 피우면 안좋다” “學生앞에서 先生님의 吸煙은 안된다”로 34.67% 셋째, 發賣禁止項目으로는 “나라는 왜 파는지, 發賣禁止를 해야 한다”는 16.11% 넷째, 其他項目으로 “自由이다” “男性의 吸煙은 팬찮다” “未成年이라도 좋다”는 16.79%였다. 즉 倫理的인 面에서도 담

배에 대한 이미지 連想語는 80.32%로 否定의 側面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 点 또한 吸煙에 대한 가치관 설정을 위해 吸煙防止教育의 일환으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나. 吸煙에 관한 이미지와 関連된 要因別 比較

1. 學校段階別 比較

中·高等學校男女 모두 1位가 “身體에 나쁘다”였으며 2位로는 高等學校 男學生인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周囲 사람의 健康에 害를 준다”는 否定의 이미지의 順位가 높게 나타났다(表4)

高等學校 男學生에게서 이러한項目이 높은 順位로 나타난 것은 우리사회가 담배에 대한 자연스러운 吸煙 분위기 조성으로 동경심을 갖게 만든 것으로 料된다.

2. 性別 比較

총49개項目을 性別로 比較하여 볼 때 가장 많이 記述되어진項目順位를 보면 表5와 같다.

男·女 記述한項目에는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담배를 해로운 것으로 認識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男子 7順位와 10順位에 “自由이다” “氣分轉換이 된다” 女子 5順位와 10順位에 “氣分轉換이 된다” “自由이다”라는肯定의 이미지도 나타났다.

3. 宗教別 比較

基督教, 天主教, 佛教, 其他, 無教의 宗教別로 比較했을 때 각 宗教간에는 큰 차이가 없이 身體的項目이 높게

表4. 學校段階別 比較

順位	中學生		高等學生	
	男	女	男	女
1	신체에 나쁘다 (21.35%)	신체에 나쁘다 (23.02%)	신체에 나쁘다 (17.77%)	신체에 나쁘다 (11.17%)
2	주위사람의 건강에 해를 준다 (9.13%)	주위사람의 건강에 해를 준다 (7.92%)	자유이다 (8.18%)	주위사람의 건강에 해를 준다 (5.87%)
3	남에게 피해를 준다 (9.05%)	기분전환이 된다 (5.48%)	기분전환이 된다 (5.81%)	여성의 흡연은 안된다 (5.82%)
4	발매금지를 해야 한다 (4.80%)	남에게 피해를 준다 (5.48%)	20세이상이라도 피우면 안된다 (4.86%)	냄새가 난다 (4.20%)

表 5. 性別에 따른 連想語

順位	男	女
1	신체에 나쁘다(19.94%)	신체에 나쁘다(14.97%)
2	주위사람의 건강에 해를 준다(6.32%)	주위사람의 건강에 해를 준다(6.53%)
3	/남에게 피해를 준다(6.32%)	여성의 흡연은 안된다(4.65%)
4	발매금지를 해야 한다(4.82%)	기분전환이 된다(4.11%)
5	미성년은 피워서는 안된다(3.56%)	남에게 피해를 준다(4.03%)
6	자유이다(3.32%)	발매금지를 해야 한다(3.99%)
7	단명(3.23%)	냄새가 난다(3.48%)
8	/기분전환이 된다(3.23%)	연기가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답답하다(3.21%)
9	화재, 산불(2.85%)	자유이다(2.89%)

表 6. 宗教別 項目別 分布

項目	基督教		天主教		佛教		其他		無教	
	항목수	%	항목수	%	항목수	%	항목수	%	항목수	%
身体的項目	853	38.64	214	47.66	257	51.81	20	60.66	503	35.75
情緒的項目	514	23.26	107	23.83	134	27.02	6	18.18	365	25.94
倫理的項目	754	34.12	112	24.94	83	16.73	7	21.21	492	34.97
其　他	88	3.98	16	3.56	22	4.44	0	0	47	3.34
計	2210	100.00	449	99.99	496	100.00	33	100.00	1407	100.00

表 7. 宗教別에 따른 連想語

順位	基督教	天主教	佛教	其他	無教
1	신체에 나쁘다 (21.31%)	신체에 나쁘다 (19.49%)	신체에 나쁘다 (19.55%)	신체에 나쁘다 (26.66%)	신체에 나쁘다 (17.94%)
2	남에게 피해를 준다 (6.42%)	주위사람의 건강에 해를 남에게 피해를 준다 (7.23%)	주위사람의 건강에 해를 남에게 피해를 준다 (7.08%)	임신에 나쁘다 (10.00%)	주위사람의 건강에 해를 준다 (5.86%)
3	주위사람의 건강에 해를 남에게 피해를 준다 (6.3%)	남에게 피해를 준다 (6.6%)	주위사람의 건강에 해를 남에게 피해를 준다 (6.8%)	미성년자가 피우는 담배는 해가 크다 (6.67%)	남에게 피해를 준다 (5.86%)
4	발매금지를 해야 한다 (5.04%)	단명 (4.72%)	미성년은 피워서는 안 된다, 비행 (4.82%)	기분전환이 된다 (4.82%)	발매금지를 해야 한다 (4.97%)

나타났다. 즉 宗教別로 담배에 대해 否定的인 이미지가 모두 강하게 나타났다.

4. 兩親의 吸煙有無에 따른 比較

吸煙群은 非吸煙群에 비해 家族中 吸煙者가 많다는

보고 및 兩親의 吸煙 行動은 高校生의 吸煙 行動에 강하게 影響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¹⁹⁾. 本 研究 調査에서는 兩親의 吸煙有無에 따른 中·高等學生의 담배에 대한 이미지의 내용을 調査한 바 兩親의 吸煙有無에 관계없이 “身體에 나쁘다” “周囲 사람의 健康에 害를 준다”의

順으로 身體的 項目的 否定의 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男女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친구의 吸煙有無에 따른 比較

친구의 吸煙 有無와 담배에 대한 이미지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친구가 吸煙을 하는 群은 吸煙 하지 않는 群보다 담배에 대한 이미지에 있어서 否定의側面의 이미지의 頻度가 낮음을 보여주었다. 즉 친구가 吸煙하는 群에서는 “自由이다” “氣分轉換이 된다” “입이 심심해서 편다”는 등의 내용의 이미지 連想이 상당히 높은 頻度를 보여 주었다. 이는 친구의 吸煙이 담배에 대한 否定의 이미지에 상당한 影響을 미치는 結果로 생각되어진다. 특히 高校生의 吸煙 行動과 그들의 吸煙에 대한 態度와 믿음이 밀접한 相互關係가 있음을 보여주는

野津有司¹⁴⁾의 보고와 類似한 結果로 생각되어진다.

6. 本人 吸煙有無에 따른 比較

현재 本人이 吸煙을 하고 있는 경우 담배의 이미지는 男性 吸煙群에서는 1位가 “身體에 나쁘다”(16.75%) 2位가 “自由이다”(11.33%) 3位가 “氣分轉換이 된다”(8.87%)였으며 女性 吸煙群에서는 1位가 “氣分轉換이 된다”(11.54%) “未成年이라도 좋다”(11.54%) “안정이 된다”(11.54%) 였으며 男性 非吸煙群에서는 1位 “身體에 나쁘다”(20.27%) 2位 “남에게 피해를 준다”(6.93%) “周囲 사람의 健康에 害를 준다”(6.93%) 女性의 非吸煙群에서는 1位 “身體에 나쁘다”(15%) 2位 “周囲 사람의 健康에 害를 준다”(6.56%) 3位 “女性 吸煙은 안된다”(4.62%)로 나타난 것을 보면 非吸煙群과 달리 吸

表 8-1. 父親의 吸煙有無에 따른 連想語

(男子인 경우)

順位	吸煙群	非吸煙群
1	신체에 나쁘다(18.07%)	신체에 나쁘다(22.37%)
2	주위사람의 건강에 해를 준다(6.13%)	남에게 피해를 준다(6.67%)
3	남에게 피해를 준다(6.05%)	주위사람의 건강에 해를 준다(6.56%)
4	발매금지를 해야 한다(5.55%)	발매금지를 해야 한다(3.87%)

表 8-2. 父親의 吸煙有無에 따른 連想語

(女子인 경우)

順位	吸煙群	非吸煙群
1	신체에 나쁘다(15.17%)	신체에 나쁘다(14.7%)
2	주위사람의 건강에 해를 준다(6.53%)	주위사람의 건강에 해를 준다(6.53%)
3	발매금지를 해야 한다(4.49%)	여성의 흡연은 안된다(5.42%)
4	기분전환이 된다(4.42%)	냄새가 난다(4.41%)

表 9-1. 친구의 吸煙여부에 따른 連想語

(男子인 경우)

順位	吸煙群	非吸煙群
1	신체에 나쁘다(15.73%)	신체에 나쁘다(21.72%)
2	자유이다(9.59%)	주위사람의 건강에 해를 준다(8.13%)
3	기분전환이 된다(6.60%)	남에게 피해를 준다(8.06%)
4	입이 심심해서 편다(4.72%)	발매금지를 해야 한다(4.86%)

表 9-2. 친구의 吸煙여부에 따른 連想語

(女子인 경우)

順位	吸煙群	非吸煙群
1	신체에 나쁘다(12.6%)	신체에 나쁘다(15.38%)
2	여성이 흡연은 안된다(5.09%)	주위사람의 건강에 해를 준다(6.96%)
3	호기심이 있다(4.29%)	여성의 흡연은 안된다(4.58%)
4	주위사람의 건강에 해를 준다(4.02%)	기분전환이 된다(4.21%)
5	/발매금지를 해야 한다(4.02%)	/남에게 피해를 준다(4.21%)

表 10-1. 현재 本人의 吸煙有無에 따른 項目別 分布

項目	吸煙群		非吸煙群	
	男	女	男	女
身体的項目	46(22.66%)	7(26.92%)	835(43.18%)	960(37.92%)
情緒的項目	69(33.99%)	9(34.62%)	393(20.32%)	655(25.87%)
倫理的項目	81(39.90%)	9(34.62%)	606(31.33%)	852(33.65%)
其他	7(3.45%)	1(3.85%)	100(5.17%)	65(2.57%)
計	203(100.00%)	26(100.01%)	1934(100.00%)	2532(100.00%)

表 10-2. 현재 本人의 吸煙有無에 따른 連想語

(男子의 경우)

順位	吸煙群	非吸煙群
1	신체에 나쁘다(11.33%)	신체에 나쁘다(20.27%)
2	자유이다(16.75%)	남에게 피해를 준다(6.93%)
3	기분전환이 된다(8.87%)	/주위사람의 건강에 해를 준다(6.93%)
4	입이 심심해서 편다(8.37%)	발매금지를 해야 한다(4.81%)

表 10-3. 현재 本人의 吸煙有無에 따른 連想語

(男子의 경우)

順位	吸煙群	非吸煙群
1	기분전환이 된다(11.54%)	신체에 나쁘다(15.00%)
2	/미성년이라도 좋다(11.54%)	주위사람의 건강에 해를 준다(6.56%)
3	/안정이 된다(11.54%)	여성의 흡연은 안된다(4.62%)
4	여성의 흡연은 안된다(7.7%)	남에게 피해를 준다(4.07%)

煙群에서는 情緒的·倫理的인 面에서 담배에 대한 이
미지가 否定的인 面이 낮았다. 本 研究 調査에서는 村
松常司가 調査한 情緒的·倫理的 이미지인 “담배가 싫

다” “口臭” “담배가 氣分 나쁘다” 등의 이미지 連想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肯定的인 面을 보였다. 이미지 만
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情緒的으로 否定的인 이미

지가 낮은 것으로 미루어 吸煙은 社會的 강화를 통해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또한 吸煙이라는 것은 精神社会의 對處機轉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즉 부담되는 상황에서 보다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다. 따라서 吸煙을 경험하는 群에서 담배 이미지 連想이 높은 順位인 “氣分轉換 및 안정이 된다”는 言語連想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겠다.

7. 장래 吸煙意志에 따른 比較

장차 당신은 吸煙을 하겠습니까? 라는 장래 吸煙意

志에 대해 피우지 않겠다고 대답한 수는 89.22%로 높은 비율이었으며 身體的·情緒的·倫理的項目에서 모두 否定의 이미지가 높았다. 반면 吸煙 希望群에서는 身體的項目의 否定의 이미지가 낮게 나타났으며 情緒的·倫理的項目에서는 담배에 대해 肯定의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다.

즉 吸煙 希望群에서 身體의 面에서 否定의 側面에 대한 약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양가적인 思考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身體의 側面과 더불어 情緒的·倫理的 側面에서의 吸煙 防止 教育이 더욱 必要할

表 11-1. 장래 吸煙意志에 따른 項目別 比較

	피우겠다	피우지 않겠다
身體的項目	112 (23.05%)	1736 (43.14%)
情緒的項目	146 (30.04%)	980 (24.35%)
倫理的項目	217 (44.65%)	1146 (28.48%)
其 他	11 (2.26%)	162 (4.03%)
計	486 (100.00%)	4024 (100.00%)
	* 10.78%	* 89.22%

*의 비율은 “피우겠다”와 “피우지 않겠다”的 %임.

表 11-2. 장래 吸煙意志에 따른 連想語

(男子의 경우)

	피우겠다	피우지 않겠다
1	신체에 나쁘다(15.27%)	신체에 나쁘다(20.14%)
2	자유이다(9.47%)	주위사람의 건강에 해를 준다(7.40%)
3	기분전환이 된다(7.37%)	남에게 피해를 준다(7.34%)
4	발매금지를 해야 한다(5.26%)	발매금지를 해야 한다(4.72%)

表 11-3. 장래 吸煙意志에 따른 連想語

(女子의 경우)

	피우겠다	피우지 않겠다
1	신체에 나쁘다(10.38%)	신체에 나쁘다(15.09%)
2	/기분전환이 된다(10.38%)	주위사람의 건강에 해를 준다(6.69%)
3	자유이다(9.43%)	여성의 흡연은 안된다(4.69%)
4	멋있다(7.55%)	발매금지를 해야 한다(4.00%)
5	미성년이라도 좋다(3.77%)	/남에게 피해를 준다(4.00%)
	/때와 장소를 가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좋다(3.77%)	

것으로 생각된다.

IV. 結 論

本調查研究는 서울市內中·高等學生 852名을對象으로 담배의 이미지를 自由記述形式으로 調査하여 分析하였으며 얻은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連想語 項目別 分布

全體가 담배에 대한 이미지에 있어서 否定의으로 記述한 項目은 79.66%로 否定의인 面이 강하게 나타났다. 項目別로 身體的·情緒的·倫理的·其他로 나누었을 때 身體的 項目이 많은 頻度率 (39.36%)을 보였으며 倫理的 項目은 32.97%, 情緒的 項目 23.98%, 其他項目은 3.68%였다.

2) 學校段階別 比較

中·高等學校男女 모두 否定의인 이미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身體에 나쁘다”가 1順位였다.

3) 性別 比較

男·女 모두 비슷한 양상으로 담배를 해로운 것으로 認識하는 울이 높았지만 담배를肯定의으로 認識하는 것도 적지 않은 비율이었다.

4) 宗教別 比較

모든 宗教에서 담배에 대해 否定의인 이미지가 모두 강하게 나타났다.

5) 兩親의 吸煙有無에 따른 比較

兩親 吸煙 有無에 관계없이 “身體에 나쁘다” “周囲 사람의 健康에 害를 준다”의 順으로 身體的 項目에서 否定의 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男女차이도 없었다.

6) 친구의 吸煙 有無에 따른 比較

친구의 吸煙 有無와 담배에 대한 이미지 사이에는 상당한 큰 차이를 보여주었고 친구가 吸煙을 하는 群은 吸煙하지 않는 群보다 담배에 대한 이미지에 있어서 否定의인 側面의 이미지의 頻度가 낮음을 보여 주었다.

7) 本人 吸煙 有無에 따른 比較

현재 本人이 吸煙을 하고 있는 경우 담배의 이미지는 吸煙群에서는 身體的 項目·情緒的 項目에서 모두 否定의 側面이 낮게 나타났으며 非吸煙群에서는 身體的·情緒的·倫理的 項目 모두 否定의 側面이 높게 나타났다.

8) 장래 吸煙意志에 따른 比較

장래 吸煙意志에 대해 피우지 않겠다고 대답한 수는 89.22%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즉 吸煙希望群에서 身體의in面에 대해 덜 否定의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며 반면 情緒的·倫理的in面에서는 肯定의인 이미지를 갖는 양가적인 思考를 볼 수 있었다.

이상으로 나타난 問題 解決을 위한 올바른 認識轉換을 위해서는 禁煙教育의 側面에서 豫防教育을 強化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學校當局에 맡겨져 있는 善導次元에서의 禁煙教育 내지 一方의으로 행해지는 處罰의 次元에서의 禁煙education이 政策의 次元으로 轉換되어야 할 것이며 간단한 法律이나 醫學的 側面만이 아니라 담배에 대한 이미지 또한 명백히 하여 社會學의, 心理學의, 教育學의in多方面에서의 檢討가 요구되어진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정 경임, 일부 남자고등학생의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보건협회지, (3) 60~67
- 정 명희, 흡연의 악리학 대한의학협회지, 1987, 30(8) 831~836
- 김 일순, 우리나라 국민의 흡연실태 대한보건협회 제26회 보건학세미나, 흡연과 국민보건, 1989.
- 김 상철, 금연대책, 대한의학협회지, 1987. 30(8) : 853~857
- 김 건열, 흡연에 의한 건강장애, 대한보건협회, 흡연과 국민보건 제26회 보건학세미나, 1989.
- 노 영무, 흡연과 심혈관질환, 대한의학협회지 1987. 30(8). 837~841
- 박 이갑, Nicotine과 순환기장애, 대한의학협회지, 1987. 10(3) 574~575
- 송 미숙, 여대생에 있어서 흡연양상과 흡연이 영양 섭취 및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내 여자대학

- 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987.4(2), 71－93
9. 신 만련, Nicotine의 약리, 대한의학협회지 1967. 10(8), 564－566
10. 김 일순, 흡연과 건강, 대한의학협회지, 1987. 30(8), 825－841
11. 조 상문, 한국 고등학생들의 흡연에 관한 조사연구, 공중보건잡지, 1973. 10(1)
12. 최 신해, 금연의학, 대한의학협회지 1967. 10(8), 557－580
13. 村松常司, タバコに係る 小・中・高教生の イメージに関する 研究. 学校保健研究 1985 : 27(9), 431－441
14. 野律有司, 青少年の 喫煙に 関する 調査研究 第2報
- 学校保健研究, 1985 : 27(4) : 190－200
15. 吉田真司外, 未成年女子の飲酒と喫煙行動に与える要因の検討, 学校保健研究, 1989. 31(5) : 235－243
16. 田中純子外, 女子短期大學生における喫煙習慣の形成要因に関する研究, 学校保健研究, 1988 : 30(4) : 196－204
17. 김 원동, 흡연과 폐질환, 대한의학협회지 1987. 30(8), 843－847
18. 조 수현, 여성과 흡연, 대한의학협회지 1987. 30(8) 849－851
19. 이 승련, 서울시내 남자고등학생들의 흡연행태 및 지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988. 5(1) 47－56

(Abstract)

A Study on the Image for Smoking among the Students

Myung Kim* **Seung Deuk Ko*** **Ju Mi Park***

Sun Hee Kim* **Sun Hye Ko****

(Dept. of Health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physical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In order to promote an anti-smoking education, we must understand how students imagine about smoking. The author has studied the image for smoking among 856 students in an openended method.

The survey was conducted in April and May of 1989. The answers have been grouped into 49 response categories. 79.7% of the categories reflect a negative view of smoking. 34.4% of the 49 evaluate smoking from a physical viewpoint; 33% from an emotional viewpoint; and 23.9% from an ethical viewpoint.

The most common response is that smoking is "Bad for the health". The next most common responses are "Harmful for people nearby".

In order to effectively carry out anti-smoking education for your people, emotional and ethical aspects, as well as physical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Other important considerations are sex, grade.